

효성, 에너지 절약제품 대거 선보여

서울 기후변화 박람회 참가 ... 신·재생 에너지에서 재활용 원사까지

효성이 서울 기후변화 박람회에서 친환경 제품을 대거 전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.

효성은 5월18~21일 4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박람회에 참가해 풍력, 태양광, 연료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스템을 포함해 고효율 전동기, 고효율 펌프, LED(Light Emitting Diode) 등 독자 개발한 에너지 절약 제품을 선보였다.

특히, 국내 최대 용량인 2MW급 풍력 발전기 모형은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과정을 공개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.

또 경제성과 안정성이 뛰어나 친환경 자동차 원료로 주목받는 압축천연가스(CNG: Compressed Natural Gas) 충전소 모형도 관심을 끌었다.

아울러 최고 90%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LED 신호등과 빌딩 조명,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설, 메탄가스 재활용 설비, 재활용 섬유제품 등 자원순환 분야 제품도 인기를 얻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.

이밖에도 관람객들에게 재활용 원사 <리젠>으로 만든 친환경 장바구니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.

서울 기후변화 박람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대도시 모임인 C40의 서울총회와 동시에 개최하고 있으며 전시회에는 효성 등 40여개 기업과 세계 13개 도시가 참여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5/20>